

## 2013 AAAAI 참석 후기

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전임의 이서영

동거동락 했던 동료들을 떠나 보내고 새로운 식구들을 맞으며 유난히 부산스러웠던 지난 2월 말, 맡았던 일들을 급하게 정리하고 샌 안토니오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예전부터 꼭 한번 다녀오고팠던 AAAAI였고 가기 전 많이 준비해서 많은 것을 배워오리라 계획했었지만 그 다짐을 상기할 여유도 없이 출국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을 안고 탄 비행기 안에서는 눈을 잠시 감았다 뜨니 6시간이 지나있고 또 한 번 감았다가 뜨니 7시간이 지나 경유지인 디트로이트에 도착해있는 다소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며 개최지인 샌 안토니오에 도착하였습니다.

미국은 2011년 덴버 이후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샌 안토니오는 텍사스 주 남부에 자리한 도시로 1718년 에스파냐군의 성채가 건설되어 에스파냐인이 이주하였고 1821년 멕시코혁명에 의해 멕시코령이 되었으나 1845년 텍사스주의 독립운동에 의해 미국령이 된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 곳곳에 멕시코 풍의 건축물이 미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남부지방의 따뜻한 기후로 단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행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였습니다.

샌 안토니오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로 학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대부분의 호텔에서 도보로 가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회를 시작하던 날 아침, 날씨는 예상보다 쌀쌀했지만 호텔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잔뜩 기대를 안고 학회장으로 걷는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프로그램 책자를 받아 관심 있고 놓치지 않아야 할 세션들을 체크하며 느낀 점은 다양한 주제의 많은 강의와 발표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회가 열린 Henry B. Gonzales Convention Center]



[학회 첫 날 프로그램을 받고]

이번 AAAI에서는 첫 날 중요한 course가 진행되고 둘째 날부터는 소규모의 seminar-그 중 상당수는 미리 신청을 받는 것들-와 abstract session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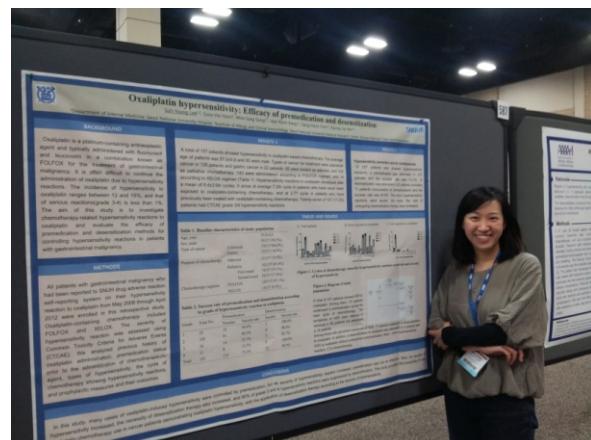
한 배려가 참석할 session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느 큰 학회처럼 여러 세션이 주제별로 동시에 진행되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결국에는 그리 만만한 가격이 아닌 visual recording CD에 대한 구매욕을 불태우게 되는 것은 이번 학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날, 여러 course 강의들 중에서 특히 최근 개인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drug hypersensitivity, desensitization과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food allergy, tolerance에 대한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의 여러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 치료와 그리 큰 간극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가들의 강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학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고 알레르기학 안에서 이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과 시도를 하고 있음에 연자와 방 안의 청중들과 뭔지 모를 교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oral abstract와 poster session에 참석하여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주로 천식 기전과 T세포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었는데 각국의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을 배울 수 있었고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잘 모르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학문과 노동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다짐하지만 과중한 업무와 의무로 여유를 잃고 목적의식 없이 이끌려 살아가는 보통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충전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저녁에는 이런 큰 학회에서 빠질 수 없는 Korean night가 river walk 근처의 멕시칸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각 과의 많은 선생님들과 담소를 나누었는데 한국에서도 자주 보지 못해 오랜만에 만난 선배님들과 사사로운 수다를 떨기도 하였고, 교수님들께서는 아직 연구자로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모인 자리인 Plenary session]



[포스터 앞에서]

하루에 두 차례 정도의 plenary session은 모든 학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seminar를 듣고 poster를 보고 부스에 있던 사람들이 plenary session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면 모두 큰 hall로 동시에 몰려드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넷째 날인 월요일에는 포스터를 붙이고 discussion 하기도 하였습니다. 포스터가 주제 별로 전시되어 있어 주변의 연구자들과 연구 주제가 비슷했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심도 약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회장에서 바라본 river walk와 보트를 타는 관광객들]

샌 안토니오는 관광도시이긴 하지만 큰 도시가 아니고 볼거리가 집중되어 있어 별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수로(river walk) 주변을 부담 없이 걸으며 여행자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작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예쁜 도시로, 도시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학회 기간 동안을 보내고 돌아올 때에는 어느 새 샌 안토니오에 대한 애착이 많이 생겨, 돌아온 지 2주가 지난 아직까지도 사진을 보면 애틋한 감상에 젖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2014년 샌디에고에서의 AAAAI는 어떨까 내심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AAAAI 안에서 많은 알레르기와 면역학 연구자들과 같이 호흡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는 나 자신이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발전한 모습이었으면 바래봅니다.